■ 민족문화연구 제99호(2023.0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305-339.
http://doi.org/10.17948/kcs.2023..99.305

수원화성박물관 소장『北學議』의 원본성 검토

박철상(朴徹庠)*

목 차

1. 시작하는 말
2.『북학의』편찬 과정
3.『북학의』異本 검토
4.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원본『북학의』검토
5. 맺음말

국문초록

박제가의『북학의』는 19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저술의 하나이다. 최근 그『북학의』의 원본으로 알려진 책이 공개되었다. 이에 따라 그『북학의』가 원본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논고에서는 이를 위해 먼저『북학의』의 편찬 과정과 여러 이본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박지원이 편찬한『삼한총서』에 실린『북학의』는『북학의』초기 모습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원화성박물관 소장『북학의』에 실린 박지원의 〈북학의서〉가 그의 친필임도 확인하였다. 내외편『북학의』이본들이 수원화성박물관 소장『북학의』에서 파생된 것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수원화성박물관 소장『북학의』가 박제가 친필의 원본임을 고증하였다.

주제어: 朴齊家, 朴趾源, 北學議, 三韓叢書, 進上本, 北學.

* 한국문헌문화연구소 소장.

1. 시작하는 말

正祖의 등극으로 조선후기는 학문적, 문화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심에는 淸나라 문물의 제한적 수용이 있다. 이를 통해 조선은 닫힌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 조금씩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19세기 조선은 청나라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北學의 시대를 맞는다. 이러한 흐름의 뿌리에는 바로 박제가의 『北學議』가 있다. 20대 청년 박제가가 저술한 『북학의』는 당시 민간의 학자는 물론이고 정조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그 책은 조선시대엔 간행되지 못했고, 寫本으로 유통되었을 뿐이다. 『북학의』 원본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다. 몇 번의 전시를 통해 잠깐씩이나마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상당히 오랜 기간 다시 사라졌다. 분실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러다 최근 바로 그 원본 『북학의』를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입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그 책이 『북학의』 원본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본 논고에서는 『북학의』 편찬 과정 및 異本을 살펴보고, 이본간 비교를 통해 수원화성박물관 소장본의 원본성[1]을 검토하고자 한다.

2. 『북학의』 편찬 과정

1) 『북학의』 內編·外編 편찬

『북학의』의 편찬에 관해서는 별도의 범례나 기록이 없다. 박제가 문집에도 이에 관한 별도 기록이 없다. 『북학의』에 첨부된 세 편의 서문을 통해 편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먼저 1778년 9월 29일에 박제가 자신이 붙인 서문을 보자.

> 올여름 陳奏使 燕行에 나와 靑莊館 李君(李德懋)이 따라가서 燕州와 薊州 사이의 들판을 맘껏 보았고, 청나라 吳蜀 지역 선비들과 교유하였다. 여러 달 머물면서 전에 듣지 못한 이야기를 더욱 많이 들었는데, 옛 풍속이 아직도 남아있고 이전 사람들이 날 속이지 않은 걸 탄식하였다. 그 풍속 중 우리나라에서 시행할만하고

1) 원본성이란 용어는 원본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인장, 기록 등이 없기 때문에 사용한 용어다.

일상생활에 편한 것을 보고 듣는 대로 책에 기록하였고, 아울러 시행했을 때의 이점과 시행하지 않았을 때의 폐단을 첨부하여 이야기를 만들었다.『孟子』陳良의 말을 가져와『북학의』라 이름하였다.[2)]

1776년 11월 유득공의 叔父 柳琴(1741-1788)은『韓客巾衍集』을 행장에 넣고 謝恩副使 徐浩修(1736-1799)를 따라 청나라 燕京에 갔다. 이 책은 李德懋(1741-1793), 朴齊家(1750-1805), 李書九(1754-1825), 柳得恭(1748-1807)의 시를 각각 100수씩 모은 시집이다. 유금은 이 책을 청나라 문사들에게 보이고 비평을 받기 위해 가지고 갔던 것이다. 유금은 북경에서 만난 李調元(1735-1803)과 潘庭筠(1742-?)으로부터 네 사람의 시에 대한 비평과 함께 序文을 받아 귀국하였다. 이로부터 네 사람은 세상에 四家詩人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사건은 조선과 청나라의 문사들의 교류에 기폭제가 된 사건으로 조선후기 문화, 학술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으로 기억할만하다. 박제가는『한객건연집』에 붙인 청나라 문사들의 서문과 詩評에 흥분하였고, 마침내 이덕무와 함께 1778년 3월에 청나라 연경으로 가는 謝恩兼陳奏使를 따라나섰다. 당시 正使는 蔡濟恭, 부사는 鄭一祥, 서장관은 沈念祖였다. 사신 일행은 7월 2일에 귀국하여 정조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박제가는 연행의 견문을 바탕으로 그해 9월에『북학의』를 저술하고 서문을 썼다. 박제가의 나이 29세였다. 귀국 후 석 달 만에『북학의』를 완성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귀국 후 몇 달 만에 이 모든 것을 완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미 어느 정도 준비돼있었을 것이고, 여기에 연행의 견문과 경험이 더해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음은 燕巖 朴趾源(1737-1805)이 1781년(정조 5) 중양일에 쓴 〈北學議序〉이다.

내가 연경에서 돌아오자 재선(在先: 박제가의 자)이 그의『북학의』內外 2編을 보여주었다. 대개 재선은 나보다 앞서 연경에 들어간 사람이다. 농업, 잠업, 목축, 성곽, 궁실, 배, 수레로부터 기와, 삿자리, 문방구, 자의 제도에 이르기까지 눈여겨

2) 今年夏, 有陳奏之使, 余與靑莊李君從焉, 得以縱觀乎燕薊之野, 周旋于吳蜀之士, 留連數月, 益聞其所不聞, 歎其古俗之猶存, 而前人之不余欺也. 輒隨其俗之可以行於本國, 便於日用者, 筆之於書, 並附其爲之之利與不爲之弊而爲說也, 取孟子陳良之語, 命之曰北學議. 번역의 안대회 교수의『완역 정본 북학의』, 돌베개, 2013을 따르되 필요한 부분은 약간 수정하였다. 이하 번역 부분은 동일하다.

보고 속으로 따져보지 않은 게 없었다. 눈으로 봐서 알 수 없는 게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았고, 마음으로 알 수 없는 게 있으면 반드시 배웠다. 책을 펼쳐봤더니 나의 日錄(『熱河日記』)과 어긋나는 게 없어 마치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듯하였다. 이게 바로 기꺼이 내게 보여준 이유이며, 내가 기쁘게 사흘을 읽고도 싫증을 내지 않은 까닭이다.3)

박지원은 1780년 5월 청나라 乾隆帝의 70세를 축하하기 위해 떠나는 사신단을 수행하여 연경에 갔다. 귀국 후 박지원은 『열하일기』를 지었는데, 이때 박제가가 지은 『북학의』 내외 2편을 보게 되었다. 박지원은 이 책의 내용이 자신의 『열하일기』 내용과 같은 것을 보고 기쁜 나머지 사흘 만에 독파했다고 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끝에 친필의 〈북학의서〉를 지어 붙였는데, 수원화성박물관 소장본 『북학의』에 남아있다. 그다음 해인 1782년 9월엔 徐命膺(1716-1787)이 〈북학의서〉를 썼다.

朴齊家 次修(박제가의 자)는 기이한 선비다. 무술년(1778)에 陳奏使를 따라 연경에 들어가 성곽, 주택, 수레, 일상에 쓰는 기물 등을 맘껏 보고는 탄식하며 말했다. "이는 명나라의 제도다. 명나라의 제도는 또 『周禮』에 기록된 제도다." 무릇 우리나라에 통행시킬만한 걸 만나면 잘 살펴보고 가만히 기록해두었다, 혹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널리 물어봐서 그 의혹을 해소했다. 돌아와 책에 써서 『북학의』 內外編을 만들었다. 그 서술이 자세하고 엄밀하며, 시행 방법이 명확하고 분명했다. 게다가 동지들의 관련 글을 첨부하였으니 한 번 책을 펼쳐보면 미루어 시행할 수 있다.4)

박제가와 박지원은 모두 연행을 다녀왔다. 두 사람 모두 청나라 문물을 통해 당시 조선의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박제가는 조선의 상황을 '백성들은 가난하고 국가 재정은 열악한' 것으로 진단하고,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바로 『북학의』

3) 余自燕還, 在先爲示其北學議內外二編, 盖在先先余入燕者也. 自農蚕畜牧城郭宮室舟車, 以至瓦簞筆尺之制, 莫不目數而心較, 目有所未至, 則必問焉, 心有所未諦, 則必學焉. 試一開卷, 與余日錄, 無所齟齬, 如出一手. 此固所以樂而示余, 而余之所欣然讀之三日而不厭者也.

4) 朴齊家次修, 奇士也. 歲戊戌, 隨陳奏使入燕, 縱觀其城郭室廬車輿器用, 歎曰此皇明之制度也. 皇明之制度, 又周禮之制度也. 凡遇可以通行於我國者, 熟視而窺識之, 或有未解, 復博訪以釋其疑. 歸而筆之於書, 爲北學議內外篇. 其紀數詳密, 布法明暢, 且附以同志之論, 一按卷可推行.

내외편이다. 박지원은 나라의 병폐 원인으로 '잘못된 학문 풍토'를 들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나라의 문물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본 것이다. 박제가가『북학의』내외편을 지은 목적은 자신이 청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을 조선에서 시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를 시행할만한 인물이 이 책을 읽어야 한다고 보았다. 서명응에게 보인 이유다. 서명응은 이 책을 보고『주례』를 떠올렸다. 그 핵심은 바로 '규격화'에 있었다. 조선 제도의 문제점은 바로 '규격화의 결여'에 있었다.『북학의』는 바로 그러한 문제점을 통렬히 지적한 것이다. 이 점은 근대 서구 문물이 들어올 때 조선의 지식인들이 가장 유의했던 부분이다. '규격화'는 바로 '근대성'의 중요한 단면이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대략 1780년에 시작된『북학의』내외편은 1782년 9월경에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에도 조금씩 증보와 수정이 이루어지지만 크게 변화된 것은 없다.

2) 進上本『북학의』편찬

『북학의』내외편이 완성된 이후『북학의』는 또 한 번의 변화를 맞는다.『북학의』의 일부를 뽑아 增補와 刪削을 거쳐 정조에게 바친 것이다. 정조는 1798년 11월 30일에 〈勸農政求農書綸音〉을 내렸다. 농정을 권하고 농서를 구하는 내용이었다.

> 서울과 지방의 대소 신하와 백성들은 모두 잘 들어라. 만약 농사에 도움이 될 만한 자신의 의견이 있으면 疏章이나 簿冊으로 서울에서는 廟堂에 올리고 지방에서는 監司에게 제출하되, 異域의 풍속이나 옛날 방책이라도 상관없으니 산골이나 沿海, 기름진 땅이나 척박한 땅에서 각각 거기에 마땅한 바를 이야기하라.[5]

당시 永平縣令으로 있던 박제가는『북학의』중에서 農政에 관계된 내용을 뽑아내고 增刪을 거쳐 정조에게 바쳤다. 앞에는 〈應旨進北學議疏〉를 첨부하였다. 이것이 바로 진상본 또는 進疏本으로 불리는『북학의』이다. 이는 내외편

5) 正祖,『弘齋全書』권29,「綸音四」. "京外小大臣庶, 咸須聽悉, 如有己見可以有裨於三農者, 或以章疏, 或以簿冊. 京而呈于廟堂, 外而納于監司, 而毋泥乎異俗, 毋拘乎古方, 山沿饒瘠, 各陳其當."

『북학의』를 抄略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증산을 더했기 때문에 내외편과는 다른 또 하나의 새로운 『북학의』로 인식해야 한다. 이후 진상본 『북학의』는 별도로 유통되기보다는 내외편과 합편되어 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전하는 『북학의』 이본에도 합편본이 가장 많다.

3. 『북학의』 異本 검토

1) 이본 현황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북학의』는 내외편본과 진상본이 있다. 이들 이본에 대해서는 안대회 교수가 모두 20종의 이본을 제시하고, 이를 비교, 교감하여 번역과 함께 정본 『북학의』를 제시하였다.[6] 본 논고에서는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안대회 교수가 명명한 이본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키로 한다. 필자는 이들 이본을 내외편본, 진상본 및 이 둘을 합한 合編本, 이들 중 일부를 뽑아 필사한 抄略本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안대회 교수가 제시한 20종의 이본 중에서 國編本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연활자본인데 이는 원본성 검토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제외하고, 필자가 확인한 5종을 추가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연번	구분	안대회 교수 명명 이본	소장처	책수	비고
1	內外編本	三韓本	고려대학교 만송문고	1	
2		六堂本	고려대학교 육당문고	1	
3		陶南本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	필자 미확인
4		가람본	서울대학교 가람문고	2	
5		崇實本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2	
6		高大本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2	필자 미확인
7		**-**	**수원화성박물관**	**2**	
8		**-**	**실학박물관**	**2**	
9	進上本	東洋本	일본 동양문고	1	
10		淵民本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	1	
11		버클리본	미국 UC버클리대학교 도서관	1	

6) 안대회, 「해제: 열린 사회를 꿈꾼 개혁과 개방의 사상」, 『완역 정본 북학의』, 돌베개, 2013, 495-497면.

12	合編本	奎章閣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	
13		燕京本	미국 하버드대학교 옌칭도서관	1	
14		藏書閣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	
15		自然本	일본 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 도서관	2	
16		月田本	월전미술관	3	
17		國立本	국립중앙도서관	3	
18		今西本	일본 덴리대학		필자 미확인
19		一覽本	고려대학교 육당문고	1	
20		**-**	**일본 교토대학 가와이문고**	**1**	
21		**-**	**부산광역시 시립시민도서관**	**3**	필자 미확인
22	抄略本	楚亭稿本	국립중앙도서관	1	
23		綱人本	임형택 교수	1	필자 미확인
24	**미상**	**-**	**중국 요령성도서관**	**1**	필자 미확인

위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북학의』는 24종의 필사본이 확인되고 있다. 원본『북학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본들의 차이를 비교해야 한다.

다만,『북학의』는 내외편본 → 진상본 → 합편본 순서로 출현했기 때문에 원본에 해당하는 내외편본의 실체를 확인하는데 진상본과 초략본은 관련이 없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진상본과 초략본의 분석은 제외한다.

2) 내외편본 검토

원본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내외편본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합편본 중에서 내외편본과 친연성이 확인되는 이본 또한 검토해봐야 한다. 다만 필자가 실물을 확인하지 못한 이본을 제외하면 내외편본이 6종, 합편본이 8종 등 모두 14종이 검토 대상이다. 이를 구분하면 원본을 그대로 베낀 '원본전사본'과 원본을 정리한 '원본 정리본'으로 나눌 수 있다.

원본 전사본은 원본에 추가된 박지원 서문, 추록된 籤紙, 정리되지 않은 수정 부분 등을 원본과 동일하게 베낀 것이다. 원본 전사본은 두 종류로 다시 구분되는데, 원본 수정전에 전사된 이본과 원본이 수정된 후에 전사된 이본이

있다. 원본 정리본은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새롭게 정리된 사본을 다시 베낀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원본 정리본의 선후 관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구분		이본 명칭	소장처	비고
원본		수원화성박물관본	수원화성박물관	
원본 전사본	원본 수정전 전사본	삼한본	고려대학교 만송문고	
	원본 수정후 전사본	실학박물관본	실학박물관	
		숭실본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원본 정리본		육당본	고려대학교 육당문고	후대 전사본
		도남본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미확인
		가람본	서울대학교 가람문고	후대 전사본
		고대본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미확인

또한 이들 전사본과 정리본 및 합편본은 형태적으로 볼 때 가장 크게 확인되는 부분이 서문의 수록 순서다. 수원화성박물관본의 박지원 친필 서문이 외편 끝에 수록되어 있어 서문 수록 순서는 이본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원본 정리본의 경우에는 박지원 서문이 내편의 앞부분에 서명응, 박제가의 서문과 나란히 배치되는데, 박제가의 서문이 맨 앞에 배치되기도 하고, 맨 뒤에 배치되기도 한다. 특히 수원화성박물관본의 경우 서명응의 서문이 맨 앞에 들어가는데, 이는 박제가가 서명응의 서문을 받은 뒤 자필로 필사하여 맨 앞에 追錄했기 때문이다. 다만, 배치 순서만 가지고 이본간의 선후를 따지기는 어렵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구분	명칭	소장처	서문 수록 순서				비고
			내편			외편	
內外篇	**삼한본**	**고려대학교 만송문고**	**박지원**	**-**	**-**	**-**	**『三韓叢書』 '燕巖山房'본**
內外篇	**수원화성 박물관본**	**수원화성박물관**	**서명응**	**박제가**	**-**	**박지원 친필**	
內外篇	**실학박물관본**	**실학박물관**	**서명응**	**박제가**	**-**	**박지원**	
內外篇	**숭실본**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서명응**	**박제가**	**-**	**박지원**	
합편본	*장서각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박제가*	*박지원*	*서명응*	-	*장서인: '李王家圖書之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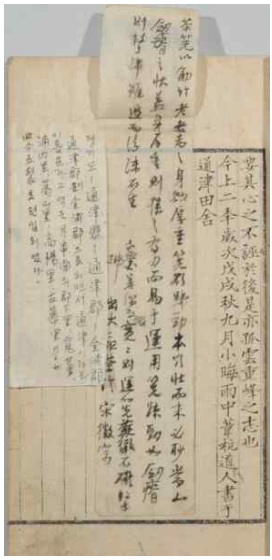
합편본	*자연본*	*일본 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 도서관*	*박제가*	*박지원*	*서명응*	-	*판심 '自然經室藏'*
합편본	*가와이 문고본*	*일본 교토대학 가와이문고*	*박제가*	*박지원*	*서명응*	-	*표제 '仙霧閣藏' 필사. 판심 '郡國利病書' 판각*
합편본	*연경본*	*미국 하버드대학교 옌칭도서관*	*박제가*	*박지원*	*서명응*	-	*'辛巳十月宗人兢性謄' (1881년)*
內外篇	가람본	서울대학교 가람문고	서명응	박지원	박제가	-	
內外篇	육당본	고려대학교 육당문고	서명응	박지원	박제가	-	후대 전사본
합편본	규장각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서명응	박지원	박제가	-	
합편본	월전본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서명응	박지원	박제가	-	
합편본	국립본	국립중앙도서관	서명응	박지원	박제가	-	宋申用 藏本을 1943년 등사
합편본	일람본	고려대학교 육당문고	서명응	박지원	박제가	-	판심에 '一覽閣'인쇄. 20세기 필사본 규장각 저본으로 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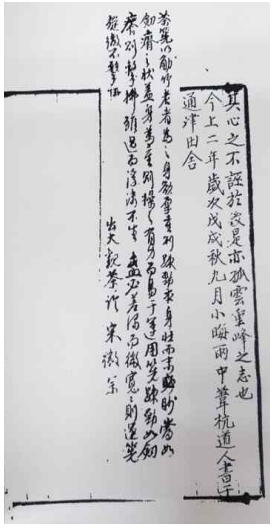
실학박물관본, 숭실본은 수원화성박물관본을 보고 그대로 전사하였다. 숭실본은 19세기 말경의 필사본으로 보이는데, 필사의 수준은 떨어지지만 수원화성박물관본을 거의 복사한 수준으로 전사하였다. 특히 박지원이 쓴 〈북학의서〉는 글씨를 摹寫하면서까지 베껴놓았다. 반면에 실학박물관본은 수원화성박물관본을 보고 그대로 베꼈는데, 籤紙는 물론이고 수정한 부분까지 그대로 전사하였고, 행서나 초서를 楷書로 전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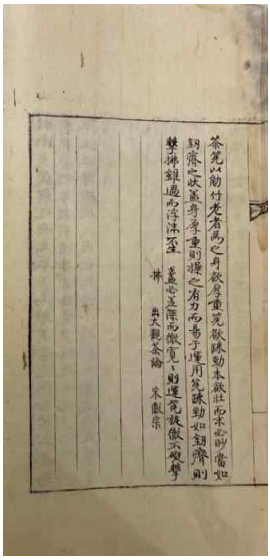
예를 들어, 수원화성박물관본의 박제가 서문 끝에는 첨지가 하나 붙어 있다. 〈大觀茶論〉에서 抄出한 것인데, 숭실본은 수원화성박물관본과 거의 유사하게 베꼈고, 실학박물관본은 행초서로 작성된 글을 해서체로 정사하였다. 이는 나머지 부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실학박물관본은 수원화성박물관본을 가장 알아보기 편하게 전사한 이본이다.

실학박물관본은 19세기 중반경에 필사되었는데, 필자가 일찍이 소개한 김정희의 저술『해동비고』를 필사한 인물과 동일인이다. 해당 필사자가 필사한 책이 대거 포함된 서책 목록이 현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박지원의『열하일기』12책,『燕巖集』7책, 박제가의『북학의』2책, 김정희의『覃揅齋詩集』2책,『覃揅齋遺稿』3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서적의 소장자와 필사자를 확인할 수 없지만, 소장자는 19세기 중반 연행과 문학에 밝은 경화세족 중 한 사람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몇 가지 요소를 비교하여 이들 내외편『북학의』이본간의 친연성을 살펴보면 글 마지막에 수록한 〈표 6〉 및 〈표 7〉과 같다. 이는 서문의 수록 순서를 통해 비교한 친연성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특히 자연본・연경본・가와이문고본・장서각본은 필사 연대가 빠를 뿐만이 아니라, 원본 정리본으로서 가장 의미 있는 사본으로 보인다.


〈그림 1〉 수원화성박물관본


〈그림 2〉 숭실본


〈그림 3〉 실학박물관본

3) 원본 정리본의 선후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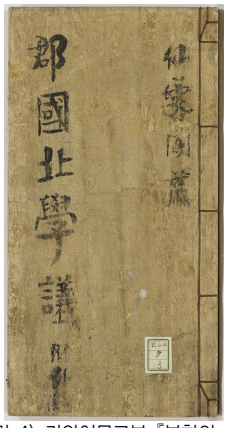
원본과 원본 전사본은 당연히『북학의』초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본 정리본의 선후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그것은 〈北學辨〉에 〈讀筆〉과 〈詩學論〉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당연히 원본과 원본 전사본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후기의 정리본에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학변〉에 〈만필〉과 〈시학론〉이 포함된 이본은 비교적 후기에 형성된 이본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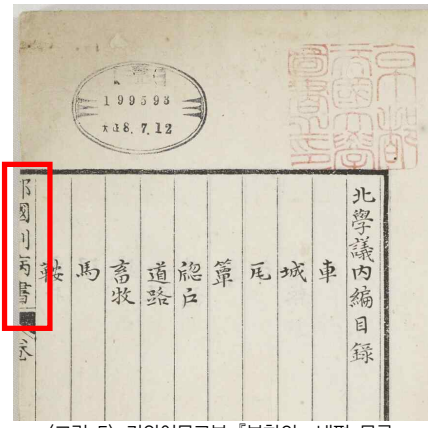
구분		이본 명칭	〈북학변〉에 〈만필〉·〈시학론〉 포함 여부
원본		수원화성박물관본	*불포함*
원본 전사본	원본 수정전 전사본	삼한본	*불포함*
	원본 수정후 전사본	실학박물관본	*불포함*
		숭실본	*불포함*
원본 정리본 A		*자연본*	*불포함*
		연경본	*불포함*
		가와이문고본	*불포함*
		장서각본	*불포함*
원본 정리본 B		가람본	포함
		육당본	포함
원본 정리본 C		규장각본	포함
		월전본	포함
		국립본	포함
		일람본	포함

원본 정리본 C에는 〈丙午所懷〉가 부록으로 추가되어 있는데, 이 글은『북학의』에 실린 글 중에서 가장 뒤에 지어진 것이므로 마지막에 만들어진 이본 계열일 것이다. 따라서 원본 정리본은 A, B, C의 순으로 정리되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수록내용을 정리한 것이 글 마지막에 수록한 〈표 7〉이다.

원본 정리본 계열은 대부분 내용이 동일하지만, 〈북학변〉에 〈만필〉과 〈시학론〉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병오소회〉의 수록 여부 및 항목의 배치 순서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가와이문고본『북학의』표지



〈그림 5〉 가와이문고본『북학의』내편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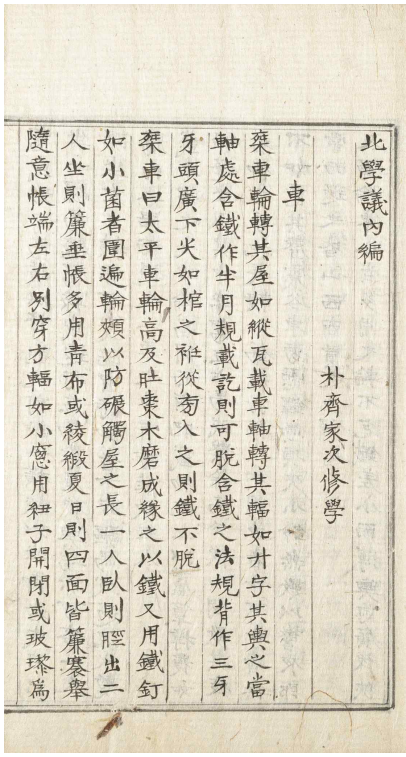
원본 정리본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이본은 가와이문고본이다. 이 책의 표제는 '郡國北學議'이며 표지면에 '仙霧閣藏'이라 墨書되어 있다. 印札紙에 필사했는데, 판심에는 '郡國利病書'라 새겼다. 명말청초의 顧炎武(1613-1682)는 일찍이 『天下郡國利病書』란 책을 저술한 바 있는데, 이는 간행되지 못하고 사본으로 전해오다 1823년(도광 3년)에 간행되었다. 판심의 문구는 바로 여기서 왔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표지면에 있는 '仙霧閣藏'이다. '仙霧(선락)'은 추사 김정희의 별호다. 김정희는 '仙霧老人'으로 자신을 지칭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이 책이 김정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학의』를 필사하기 위해 별도의 인찰지를 제작한 점도 중요하지만, 그 印札紙板에 새긴 문구가 '郡國利病書'라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다. 이는 '나라에 이로운 점과 병폐가 되는 점을 서술한 책' 또는 '나라의 병폐를 치유하는 책'이란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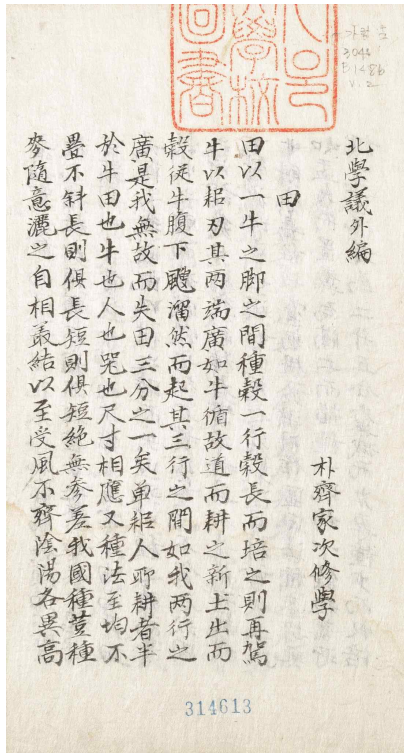
〈그림 6〉 장서각본 『북학의』 표지

또 장서각본은 표제를 사자관(寫字官)이 쓴 것으로 보이는 왕실 소장본이다. 원본 정리본 A계열의 사본으로 의미가 있다. 또, 가람본은 내편과 외편의 필사자가 다르다. 내편은 茶山 丁若鏞 제자의 한사람이 쓴 글씨로 보인다. 이는 강진시절 다산의 저술에 등장하는 글씨와 아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인찰지가 아닌 界線을 먹으로 그어 만든 종이에 필사하였고, 표지는 밤색으로 물들였다. 이는 다산학단 필사본의 전형적인 형태다. 정약용은 자신의 저술에서 『북학의』를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그 제자 중의 한 사람이 필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편은 전혀 다른 형태의 사본이다. 이 두 가지를 합하여 표지를 새롭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규장각본은 초기에 제작된 이본으로 끝에 〈丙午所懷〉가 첨부되어 있다. 이는 원본 정리본 C계열의 모본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본이다.


北學議內編
朴齊家次修學
車
棄車輪轉其屋如縱瓦載車軸轉其輻如廾字其輿之當
軸處含鐵作半月規載訖則可脫含鐵之法規背作三牙
牙頭廣下尖如棺之衽從旁入之則鐵不脫
棄車曰太平車輪高及肚棗木磨成緣之以鐵又用鐵釘
如小菌者圍遍輪頰以防碾觸屋之長一人臥則脛出二
人坐則簾垂帳多用青布或綾緞夏日則四面皆簾褰舉
隨意帳端左右別穿方輻如小窻用紐子開閉或玻瓈爲

〈그림 7〉 가람본 『북학의』 내편



〈그림 8〉 가람본 『북학의』 외편

4.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원본 『북학의』 검토

앞서 살펴봤듯이 『북학의』는 현재 24종의 이본이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원본 『북학의』가 출현하였다. 따라서 기존 『북학의』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해졌다. 물론 이본은 이본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간행되지 않은 어떤 저술에 있어서 원본의 출현은 그 중요성이 작지 않다. 따라서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북학의』 자체에 대한 검토는 물론이고, 기존 이본들과의 비교를 통해 그 원본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북학의』는 박제가의 친필본인가? 여기에 붙인 박지원의 〈북학의서〉는 친필인가? 수원화성박물관 『북학의』는 모든 전사본의 원본인가? 이 책의 수정사항은 신뢰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점을 검토해야 한다.

1) 원본『북학의』의 流傳

원본『북학의』의 존재가 처음 알려진 것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61년에 간행한『貞蕤集附北學議』[7]를 통해서이다. 그러나 그 실체가 공개된 한참 뒤의 일이다. 통문관의 주인이었던 李謙魯씨가 88올림픽을 기념하는 古筆寫本 전시를 1988년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통문관 2층에서 열고 목록을 발행하였다.[8] 이 목록에는 박지원의 친필 서문 마지막 면 사진 한 장이 실려 있고, 목록에서는 다음 설명(일부 내용만 발췌)을 추가하였다.

> 北學議: 朴齊家著, 朴齊家 書, 正祖6(1782)以後寫, 手稿本(自筆稿本), 22.5×14cm
>
> 楚亭朴齊家가 正祖 2年(1787)에 謝恩使 蔡濟恭의 수행원으로 淸나라에 가서 새 학문을 견학하고 돌아와 저술. 內, 外編으로 되어있는데 外編末尾에 羅州人 羅德憲에 관한 記事가가 첨부되었다. 楚亭의 친필 원본이며, 연암 박지원의 친필 序文이 있다. 國內 唯一本. 國史編纂委員會에서 刊行한 貞蕤集에 수록된 北學議 底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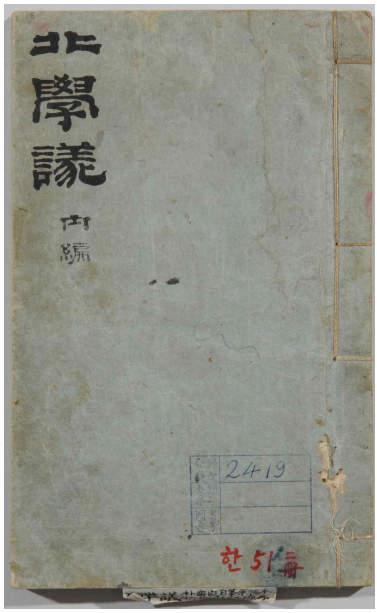
이후 1989년 4월에는 한국일보사 百想紀念館에서 稀貴本 전시회를 열고 전시 목록을 간행하였다.[9] 여기에는 원본『북학의』내편 표지, 외편 목록 첫 면, 박지원 〈북학의서〉 첫 면이 소개되었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 그 실체가 공개되었다. 그러나 전모를 알 수 없었는데, 최근 수원화성박물관에 입수됨으로써 원본『북학의』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2) 원본『북학의』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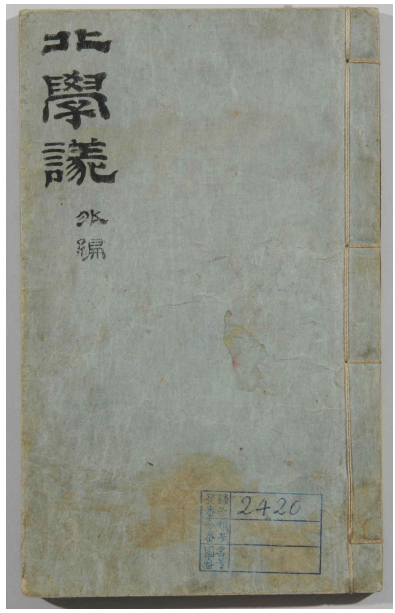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원본『북학의』는 2책의 필사본이다.

---

7) 國史編纂委員會 編,『貞蕤集—附錄北學議』(韓國史料叢刊書 第12) 1961.
8) 通文館,『88五輪記念古筆寫本展示目錄』, 通文館, 1988.
9) 한국일보사 백상기념관,『百想追念稀貴本展』, 한국일보사, 1989.



〈그림 9〉 수원화성박물관 소장본『북학의』1책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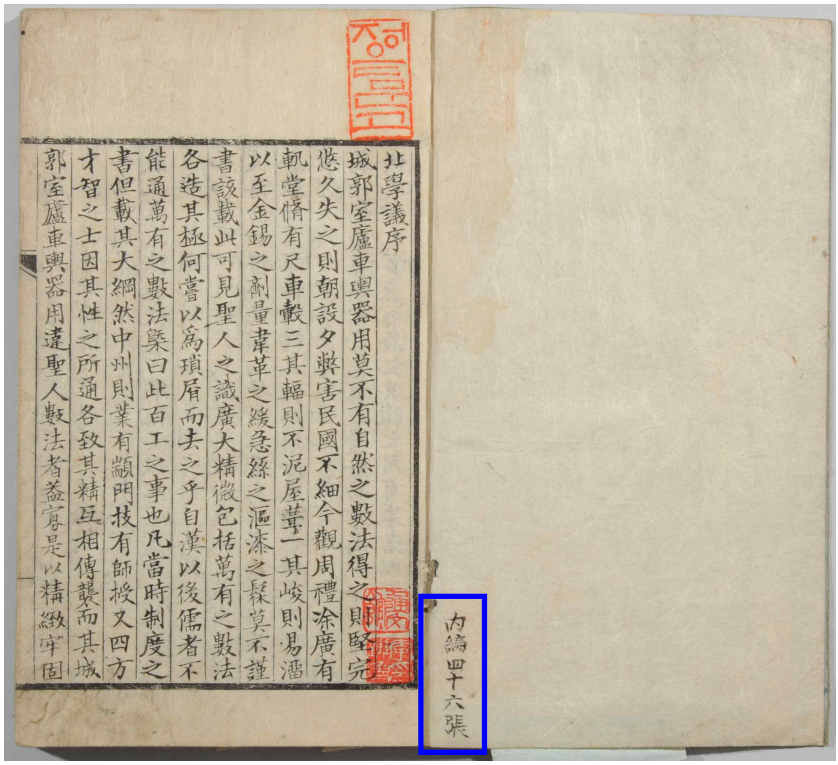
〈그림 10〉 수원화성박물관 소장본『북학의』2책 표지

표제는 각각 '北學議 內編', '北學議 外編'인데, 모두 隸書로 묵서되어 있다. 표지는 청색 계열이며 四針眼訂으로 장정되었는데, 두 가닥 실을 사용하였다. 크기는 22.5×14cm로 전형적인 중국본 裝潢 형태이다. 이는 박제가가『북학의』〈文房之具〉에서 언급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 우리나라의 서책은 거문고의 가는 줄 같은 색깔이 있는 새끼줄로 매는데도 늘 끊어진다. 너무 팽팽하게 당겨 매기 때문이다. 중국은 두 가닥 실로 매는데도 충분하다. 따라서 나는 늘 소장하고 있는 중국책이 심하게 손상되지 않았다면 장정을 고치지 않는다. 비용만 들고 도리어 서책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이다.[10]

이는 단순히 서적의 장정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박제가는 실생활에서도 조선의 문제점을 고치려 노력한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 있다 할 것이다.

10) 안대회,『완역 정본 북학의』, 돌베개, 2013, 175-176면.


北學議序
城郭室廬車輿器用莫不有自然之數法得之則堅完
悠久失之則朝設夕弊害民國不細今觀周禮冬廣有
軌堂脩有尺車轂三其輻則不泥屋葺一其峻則易漏
以至金錫之劑量韋革之緩急絲之漚漆之髹莫不謹
書該載此可見聖人之識廣大精微包括萬有之數法
各造其極何嘗以爲瑣屑而去之乎自漢以後儒者不
能通萬有之數法槩曰此百工之事也凡當時制度之
書但載其大綱然中州則業有顓門技有師授又四方
才智之士因其性之所通各致其精互相傳襲而其城
郭室廬車輿器用遠聖人數法者益寡是以精緻守固
內編四十六張

〈그림 11〉 수원화성박물관 소장본『북학의』1책 첫 면

수원화성박물관 소장본『북학의』내편의 첫 면을 열면 여백지 하단에 '內編四十六張'이라 묵서하였고, 첫 면 상단 書眉에는 〔정음문고〕 인장, 하단에는 〔通文館〕, 〔李謙魯印〕 두 방이 찍혀 있다. 통문관 주인 이겸로씨의 구장본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다만, 〔정음문고〕 인장은 실제로 정음문고에서 찍은 것인지 확정할 수 없다.[11] 두 장을 넘기면 박제가의 서문이 있는데, 서미에는 〔徐相雨印〕이 있고, 하단에는 〔通文館〕, 〔李謙魯印〕 두 방이 찍혀 있다. 이를 통해 추사 김정희의 말년 제자 서상우(徐相雨,1831-1903)의 구장본임이 확인된다. 이어서 '北學議目錄'이 있고, '北學議內編'으로 시작되는 내편이 있다.

11) 통문관 소장 서적 중에는 〔정음문고〕 인장이 찍힌 게 자주 보이는데, 이 인장이 찍혀있다고 해서 정음문고 구장본이란 보장은 없다. 통문관 주인 이겸로 씨가 〔정음문고〕란 인장 실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그 인장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내편 卷首題 다음 줄에는 '朴齊家次修學'이라는 저자 표기가 있다. 이어서 항목별로 본문이 시작된다. 모든 내용은 印札紙에 묵서했는데, 반장당 11행 21자로 墨書하였다. 내편 본문의 끝에도 〔通文館〕, 〔李謙魯印〕 두 방이 찍혀 있고, 마지막 면 하단에는 〔정음문고〕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그림 12〉 수원화성박물관 소장본『북학의』2책 첫 면

외편의 첫 면을 열면 하단에 '外編四十三張'이라 묵서되어 있고, 첫 면 '北學議外編目錄' 상단 서미에는 〔徐相雨印〕과 〔정음문고〕가 나란히 날인되어 있다. 본문 첫 면에는 권수제 및 저자표기 없이 바로 항목이 시작되며, 하단에는 〔通文館〕, 〔李謙魯印〕이 날인되어 있다. 마지막 항목 〈尊周論〉이 끝나면 박지원 친필의 〈北學議序〉가 실려 있다. 서문이 끝나는 면 좌측 하단에는 〔通文館〕, 〔李謙魯印〕이 날인되어 있다. 그 뒤로는 항목명 없이 몇 편의 글이 묵서되어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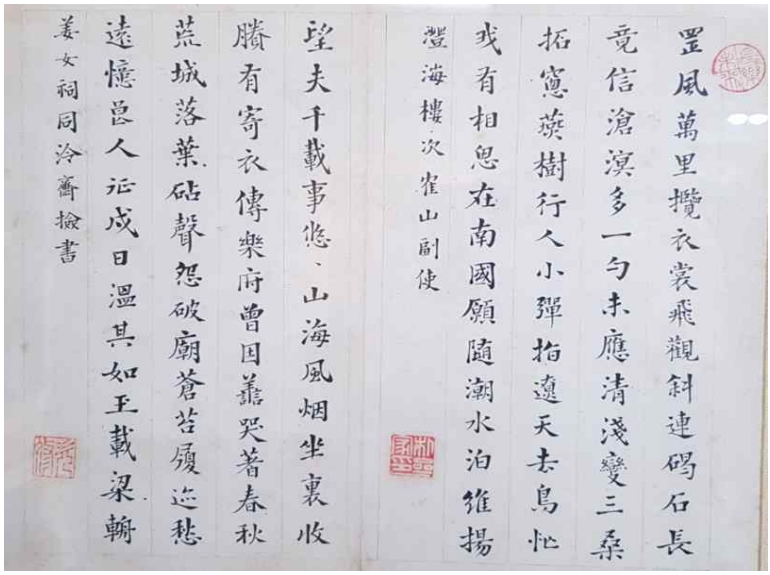
정서한 게 아닌 초고 상태다. 수정과 塗抹의 흔적이 많아 알아보기 힘들 정도다. 전형적인 稿本의 형태다. 글의 내용은 문집에 〈謾筆〉, 〈詩學論〉, 〈李廓羅德憲傳〉으로 실려 있는데, 〈만필〉, 〈시학론〉의 경우엔 후에 『북학의』 외편의 〈北學辨〉 안에 포함된다. 〈이확·나덕헌전〉은 『북학의』 목록에만 실리고 내용은 실리지 않는다. 문집에도 〈이확·나덕헌전〉으로 실려 있다. 다만 문집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일부만 남아있다. 이는 초고중 일부만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 면에는 글이 끝나는 부분에 〔通文館〕, 〔李謙魯印〕이 날인되어 있고, 좌측 하단에는 〔정음문고〕 인장이 찍혀 있다. 뒤쪽 표지면엔 〈日供〉이 묵서되어 있다.

한가지 주목할 부분은 저자 표기 부분이다. 박제가는 저자 표기 부분에 '朴齊家次修學'라 하였다. 특히 끝에 '著', '述', '撰', '輯'이 아닌 '學'이라 한 것은 조선에서는 처음 등장한 표현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宋代부터 이미 '學'이 저작 표기로 사용되고 있는데, 조선에서는 처음으로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저술에 있어서 '學'은 주로 註釋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박제가는 『북학의』에 다른 사람들의 글이 포함되고, 주로 견문의 기록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는 방식의 저술이란 점에서 '學'을 선택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여기서 '學'은 講述의 의미로 봐도 좋을 듯하다. 이 또한 조선의 전통적 저술에 표현이 아니라는 점에서 박제가의 생각이 반영된 의도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또 목록의 항목과 실제 실린 항목에 출입이 있다. 이는 처음에 항목으로 설정했다가 내용을 싣지 않았을 수도 있고, 후에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항목 설정만 해놓았을 수도 있다. 이 점은 현재로서는 규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밖에도 원본 『북학의』에는 중요한 문장에 표시한 圈點이 가득하고, 수정과 도말의 흔적도 많이 있다. 아울러 추가 증보한 籤紙도 여기저기 散在되어 전형적인 稿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북학의』가 '처음 편찬을 완성한 후 지속적인 增刪을 거친 박제가의 手稿本'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3) 원본 『북학의』 書體 검토


罡風萬里攬衣裳飛觀斜連碣石長
竟信滄溟多一勺未應清淺變三桑
拓窻蘗樹行人小彈指遼天去鳥忙
我有相思在南國願隨潮水泊維揚
澄海樓次崔山副使
望夫千載事悠悠山海風烟坐裏收
賸有寄衣傳樂府曾因蕭哭著春秋
荒城落葉砧聲怨破廟蒼苔履迹愁
遠憶邑人征戍日溫其如玉載梁輈
姜女祠同泠齋撿書

〈그림 13〉 박제가 친필 시고(詩稿)

박제가의 친필로 확인되는 자료는 많지 않다. 추정되는 글들은 일부 있지만 모든 사람이 믿게 하는 건 쉽지 않다. 인장이라도 찍혀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도 않다. 더구나 원본 『북학의』는 박제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글씨다. 또한 간찰이나 시고의 글씨와는 달리 冊書한 글씨다 보니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다행스럽게도 박제가의 인장이 찍힌 자료가 일부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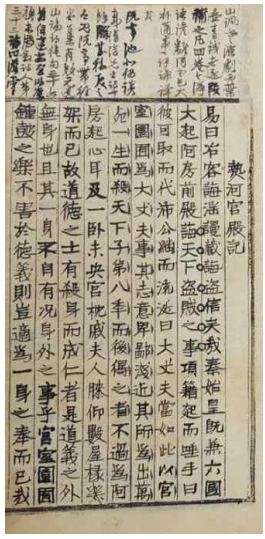
박제가는 1790년 청나라 건륭제의 八旬節을 맞아 進賀謝恩使의 軍官 자격으로 유득공, 이희경과 함께 연행하여 9월에 귀국한다. 이때 정사는 黃仁點, 부사는 徐浩修, 서장관은 李百亨이었다. 현전하는 박제가의 시고는 당시 연행에서 지은 것으로 〈澄海樓次鶴山副使〉와 〈姜女祠同泠齋撿書〉 두 수다. 鶴山은 부사로 연행했던 서호수의 別號다. 中國紙에 해정하게 필사했는데, 원본 『북학의』의 서체와 유사하다. 약간의 시차가 있긴 하지만 歐陽詢 서체를 골격 삼아 가늘고 힘있게 쓴 글씨는 상당히 유사하다. 여기에는 〔長樂未央〕, 〔朴齊家印〕, 〔次修〕 등 세 방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 두 수의 시는 문집에 〈澄海樓次副使〉, 〈姜女廟次鶴山先生韻〉라는 이름으로 제목이 수정되어 실려 있고 문구도 일부

수정되었다.[12] 이는 草稿 상태에서 필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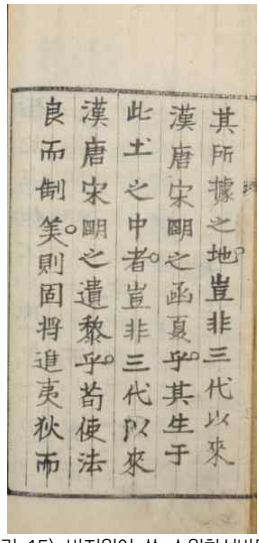
4) 박지원 친필 서문 검토

원본『북학의』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연암 박지원의 친필 서문이 실려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24종의 이본 중에서 박지원의 서문이 뒤쪽에 실린 것은 3종이고 나머지는 모두 앞부분에 실려 있다. 뒷부분에 실린 이유는 원본『북학의』를 빌려다 본 박지원이 마지막 여백에 서문을 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글씨는 박지원이 직접 쓴 것일까? 이 또한 박지원의 글씨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다행히 박지원이 연행 당시에 기록에 연행록인『燕行陰晴』의 초고본이 현전하고 있다.[13] 隸書體로 쓴 박지원의 이 글씨는 박지원 특유의 서체로 이후에도 그의 친필 稿本에 종종 등장한다. 따라서 이 글씨는 수원화성박물관 소장『북학의』가 바로 연행에서 돌아와 박지원이 빌려다 본 바로 그 원본『북학의』라는 확고부동한 증거가 된다.



〈그림 14〉 박지원이 쓴 〈熱河官殿記〉



〈그림 15〉 박지원이 쓴 수원화성박물관 소장본『북학의』의 〈北學議序〉

12) 朴齊家,『貞蕤閣集』,「貞蕤閣三集」,〈澄海樓次副使〉;〈姜女廟次鶴山先生韻〉.
13) 단국대 연민문고 소장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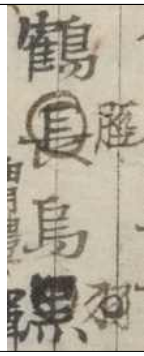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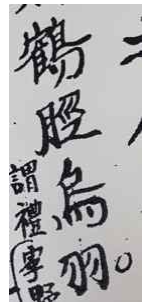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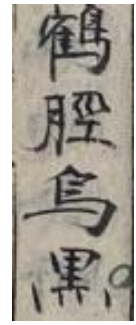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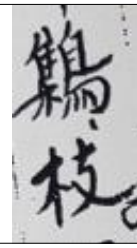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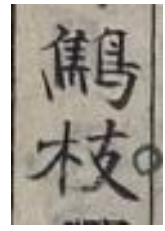
또 한 가지는 박지원이 쓴 서문에 보이는 수정된 글자가 異本에 어떻게 반영되었느냐 하는 점이다. 박지원의 친필 〈북학의서〉에는 몇 군데 글자가 수정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수정된 채 이본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한군데 차이 있는 부분이 있다. '鶴長烏黑'과 '蚡田'인데 박지원이 빌려다 본 삼한본에는 이 문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처음에는 삼한본의 문구처럼 썼다가, 후에 원본『북학의』의 문구만 수정하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부본은 수정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원본『북학의』를 그대로 전사한 숭실본에서는 이 부분이 수정한 대로 반영되어 있지만, 실학박물관본에는 '黑'자 하나가 수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원본『북학의』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수정한 글자 '羽'자가 권점 위에 묵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수정한 글자로 오판하고 '黑'자로 읽은 것이다. 이는 자연본, 연경본, 가와이문고본, 장서각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 부분에 대한 주요 이본들의 표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명칭	박지원 서문	
삼한본	**鶴長烏黑**	**蚡田**
수원화성박물관본	鶴長烏黑 → 鶴脛烏羽	蚡田 → 鷸枝
실학박물관본	鶴脛烏*黑*	鷸枝
숭실본	鶴脛烏羽	鷸枝
자연본	*鶴脛烏黑*	*鷸枝*
연경본	*鶴脛烏黑*	*鷸枝*
가와이문고본	*鶴脛烏黑*	*鷸枝*
장서각본	*鶴脛烏黑*	*鷸枝*
가람본	鶴脛烏羽	鷸枝
육당본	鶴脛烏羽(一作鶴長烏黑)	鷸枝
규장각본	鶴脛烏羽	鷸枝
국립본	鶴脛烏羽	鷸枝
일람본	鶴脛烏羽	鷸枝

이 중에서 원본과 원본 전사본의 해당 부분 표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수원화성박물관본	삼한본	숭실본	실학박물관본

5) 三韓本과의 비교 검토

삼한본은 박지원이 편찬한 『三韓叢書』에 수록된 이본이다. 『삼한총서』는 연암 박지원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여기저기 산재해 있던 문헌과 대외 교류에 관한 사실들을 모아 만들려고 기획했던 총서로 실제 완성된 것은 20-30종에 그쳤는데, 김영진 교수가 8책을 발굴, 확인하였다.[14] 『북학의』는 그중 하나다. 이본 중에서 이 책이 지니는 가치는 아주 크다. 현전하는 이본 중에서 가장 앞선 시기에 편찬된 『북학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박지원은 연행에서 돌아온 뒤 『북학의』를 읽고 감동하여 원본 『북학의』에 친필 서문까지 남겼다. 아울러 이를 한 부 필사하여 두었다가 『삼한총서』에 편입하였다. 따라서 박제가 초기 『북학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원본 『북학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아주

14) 김영진, 「조선후기 실학파의 총서 편찬과 그 의미」, 『한국 한문학 연구의 새지평』, 소명출판, 2005.

중요한 이본이다. 먼저 수원화성박물관 소장본과 삼한본의 목록과 수록 항목을 비교해 보겠다.(글 마지막의 〈표 8〉, 〈표 9〉 참조) 총서에 수록할 목적이었기 때문인지 박제가의 서문과 권수제는 물론이고, 외편의 경우 목록도 실려 있지 않다. 그래도 이를 통해 편제상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① 내편의 경우 〈古董書畫〉 까지는 항목이 확정되어 있다. 그 뒤로는 목록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 내용은 실려 있지 않다.
② 외편의 경우에는 〈桑菓〉, 〈官論・祿制〉, 〈葬論〉 등의 항목이 설정되지 않았고, 부록으로 첨부된 〈李喜經農器圖序〉, 〈李喜經龍尾車說〉, 〈丁酉增廣試士策〉 등도 실리지 않았다. 또한 〈科擧論〉도 두 개가 아닌 하나의 항목만 실려 있다.
③ 따라서 원본『북학의』는 박지원이 열람한 뒤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외편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항목이 늘어나고 同志들의 관련 글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박지원이 서문만 써준 게 아니라, 편차에 관한 조언까지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삼한본과 비교해볼 때 원본『북학의』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것은 크게 항목 신설, 내용 추가, 글자 수정, 문구 수정 등으로 나타난다. 이를 정리하면 글 마지막에 수록한 〈표 10〉과 같다. 이를 보면 내편의 경우 항목의 신설은 없지만, 대폭적인 내용 수정과 증보가 있게 된다. 외편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항목 시설이 눈에 띄지만, 수정과 증보 역시 적지 않다. 특히 〈과거론〉의 경우 원본에서는 〈과거론〉, 〈과거론2〉로 정리되어 있지만, 삼한본에는 〈科擧〉 항목에 〈과거론2〉의 내용이 실려 있다. 더구나 이 두 항목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과거〉 항목의 일부가 刪削되어 〈과거론2〉로 실렸고, 뒤에 〈과거론〉이 추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삼한본과 수원화성박물관본 사이에 변화가 있는 부분은 수원화성박물관본에서 명확한 수정・증보 및 산삭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내편 〈甓〉 항목이다. 이 항목은 두 번째 장 뒷면 3행부터 종이를 잘라내고 여백으로 두었다. 그리고 새로운 내용을 7면에 걸쳐 새롭게 썼다. 그리고 뒷면 3행부터는 〈瓦〉 항목이 시작된다. 마찬가지로 〈와〉 항목 앞의 2행은 잘라냈다. 사실 이는 잘라낸 것이 아니라, 〈벽〉 항목의

뒷부분이 〈와〉 항목인데 이를 앞에서 잘라내 이곳에 붙인 것이다.

종합하면 〈벽〉 항목과 〈와〉 항목은 본래 연결되어 있었는데, 〈벽〉 항목의 뒷부분에 내용을 7면에 걸쳐 추가하면서 새롭게 써서 끼워 넣은 셈이다. 이런 현상은 〈馬〉 항목과 〈鞍〉 항목 뒷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이 여파로 〈驢〉 항목과 〈안〉 항목은 기존의 글씨를 오려서 붙이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은 바로 삼한본이 수정전의 원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원화성박물관본이 수정을 거친 원본 『북학의』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5. 맺음말

'北學'이란 말은 본래 『孟子』, 「滕文公」 상편에 나오는 말이다. 맹자의 말 중에 다음 구절이 있다.

> 나는 중국문화로 오랑캐를 교화시켰다는 말은 들었지만, 중국이 오랑캐에게 교화를 당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陳良은 楚나라 사람이다. 周公과 孔子의 학문을 좋아하여 북쪽으로 중국에 가서 공부하였다.〔北學於中國〕 그 결과 북방의 학자들도 진량보다 나은 자가 없었다.[15]

남쪽 사람인 진량이 문화의 중심인 북쪽에 가서 공부하여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북학의』란 진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문화의 중심인 청나라의 문물을 배워 조선의 문제점을 타개해나가자는 주장을 담은 책이다. 여기에 가와이문고본 『북학의』 판심에 새겨진 '郡國利病書'라는 문구는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북학의』를 '조선의 병폐를 치유하는 책'이라고까지 했으니 말이다. 이는 당시 『북학의』의 영향력을 대변하는 문구라 할 것이다.

『북학의』는 정조에게까지 진상된 책이니 그 가치야 재론의 여지가 없으나, 당시에는 간행되지 못했고 사본으로만 유통되었다. 지금까지 24종의 이본이 확인되었지만, 더 많은 숨겨진 이본들이 있을 것이다. 그 유통의 범위와

15) 『孟子』, 「滕文公上」. "吾聞用夏變夷者, 未聞變於夷者也. 陳良, 楚産也. 悅周公仲尼之道, 北學於中國, 北方之學者, 未能或之先也."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적지 않은 양이다. 그런 면에서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소장한 원본『북학의』의 출현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본 논고에서는『북학의』의 편찬 과정과 이본에 대해 살펴보고, 수원화성박물관 소장『북학의』가 박제가 친필의 원본임을 고증하였다. 특히 박지원이 편찬한『삼한총서』에 실린『북학의』는 박제가『북학의』의 초기 모습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원화성박물관 소장『북학의』에 실린 박지원의 〈북학의서〉가 그의 친필임도 확인하였다. 내외편『북학의』 이본들이 수원화성박물관 소장『북학의』에서 파생된 것도 살펴보았다. 이들 이본은 크게 원본 전사본, 원본 정리본, 초략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원본 전사본은 수원화성박물관 소장본을 보고 그대로 베낀 책임을 확인하였다. 원본 정리본 역시 대략 세 가지 계열의 이본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선후 관계 역시 대략 살펴봤지만,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통해 각 이본간의 선후 관계를 따져보는 문제는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이제 수원화성박물관 소장『북학의』는 바로 박제가 친필의 '원본『북학의』'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부록

〈표 6〉 이본별 내외편『북학의』비교

명칭	목록 표기	내편 권수제	외편 권수제	〈通江南浙江商船議〉 문구	마지막 항목
삼한본	**北學議目錄**	**없음**	**없음**	**不可及矣. 詩云我思古人實獲我心**	**科擧**
수원화성박물관본	*北學議目錄*	*北學議內編*	*없음*	*不可及矣. 詩云我思古人實獲我心*	*尊周論*
실학박물관본	*北學議目錄*	*北學議內編*	*없음*	*不可及矣. 詩云我思古人實獲我心*	*尊周論*
숭실본	*北學議目錄*	*北學議內編*	*없음*	*不可及矣. 詩云我思古人實獲我心*	*尊周論*
장서각본	北學議內編 目錄	없음	없음	不可及矣. 詩云我思古人實獲我心	北學辨
자연본	北學議內編 目錄	없음	없음	不可及矣. 詩云我思古人實獲我心	北學辨
가와이문고본	北學議內編 目錄	없음	없음	不可及矣. 詩云我思古人實獲我心	北學辨
연경본	北學議內編 目錄	없음	없음	不可及矣. 詩云我思古人實獲我心	北學辨
가람본	北學議目錄	北學議內編	北學議外編	不可及矣	尊周論
육당본	北學議內編 目錄	北學議內編	北學議外編	不可及矣	尊周論
규장각본	北學議目錄	北學議內編	北學議外編	不可及矣	(附)丙午所懷
월전본	北學議目錄	北學議內編	北學議外編	不可及矣	(附)丙午所懷
국립본	北學議目錄	北學議內編	北學議外編	不可及矣	(附)丙午所懷
일람본	北學議目錄	北學議內編	北學議外編	不可及矣	(附)丙午所懷

〈표 7〉 원본 정리본『북학의』수록 항목 비교

구분	수원화성박물관본	규장각본, 월전본, 국립본, 일람본	가람본, 육당본	장서각본	자연본, 연경본, 가와이문고본
서문	서명응 〈북학의서〉	서명응 〈북학의서〉	서명응 〈북학의서〉	박제가 〈서〉	박제가 〈서〉
	박제가 〈북학의서〉	*박지원 〈북학의서〉*	*박지원 〈북학의서〉*	*박지원 〈북학의서〉*	*박지원 〈북학의서〉*
		박제가 〈서〉	박제가 〈서〉	서명응 〈북학의서〉	서명응 〈북학의서〉
목록제	北學議目錄	北學議目錄	北學議目錄	北學議內編目錄	北學議內編目錄
권수제	北學議內編	北學議內編	北學議內編	×	×

저자표기	朴齊家次修學	朴齊家次修學	朴齊家次修學	×	×
내편	車	車	車	車	車
	船	船	船	船	船
	城	城	城	城	城
	甓	甓	甓	甓	甓
	瓦	瓦	瓦	瓦	瓦
	甃	甃	甃	甃	甃
	簟	簟	簟	簟	簟
	宮室	宮室	宮室	宮室	宮室
	牕戶	牕戶	牕戶	牕戶	牕戶
	階砌	階砌	階砌	階砌	階砌
	道路	道路	道路	道路	道路
	橋梁	橋梁	橋梁	橋梁	橋梁
	畜牧	畜牧	畜牧	畜牧	畜牧
	牛	牛	牛	牛	牛
	馬	馬	馬	馬	馬
	驢	驢	驢	驢	驢
	鞍	鞍	鞍	鞍	鞍
	槽	槽	槽	槽	槽
	市井	市井	市井	市井	市井
	商賈	商賈	商賈	商賈	商賈
	銀	銀	銀	銀	銀
	錢	錢	錢	錢	錢
	鐵	鐵	鐵	鐵	鐵
	材木	材木	材木	材木	材木
	女服	女服	女服	女服	女服
	場戲	場戲	場戲	場戲	場戲
	漢語	漢語	漢語	漢語	漢語
	譯	譯	譯	譯	譯
	藥	藥	藥	藥	藥
	醬	醬	醬	醬	醬
	印	印	印	印	印
	氈	氈	氈	氈	氈
	塘報	塘報	塘報	塘報	塘報
	紙	紙	紙	紙	紙
	弓	弓	弓	弓	弓
	銃矢	*銃矢*	*銃矢*	*銃矢*	*銃矢*
	尺	尺	尺	尺	尺
	文房之具	*文房之具*	*文房之具*	*文房之具*	*文房之具*
	古董書畵	古董書畵	古董書畵	古董書畵	古董書畵
	杵(내용 무)				杵(내용 무)

구분	수원화성박물관본	규장각본, 월전본, 국립본, 일람본	가람본, 육당본[16]	장서각본	자연본, 연경본, 가와이문고본
목록제	北學議外編 目錄	北學議外編 目錄	–	北學議外編 目錄	北學議外編 目錄
권수제	×	北學議外編	北學議外編	×	×
저자표기	×	朴齊家次修學	朴齊家次修學	×	×
외편	田	田	田	田	田
	糞	糞	糞	糞	糞
	桑菓	桑菓	桑菓	桑菓	桑菓
	農蠶總論 (*鑽楻*之制)	農蠶總論 (*鑽楻*之制)	農蠶總論 (*鑽楻*之制)	農蠶總論 (*鑽楻*之制)	農蠶總論
	(附)李喜經 農器圖序	(附)李喜經 農器圖序	(附)李喜經 農器圖序	(附)李喜經 農器圖序	(附)李喜經 農器圖序
	龍尾車說 (綸菴 李喜經)	龍尾車說 (綸菴 李喜經)	龍尾車說 (綸菴 李喜經)	龍尾車說 (綸菴 李喜經)	龍尾車說 (綸菴 李喜經)
	科擧論	科擧論二則	科擧論一	科擧論	科擧論
	科擧論二		科擧論二		(附)丁酉 增廣試士策
	(附)丁酉 增廣試士策	(附)丁酉 增廣試士策	(附)丁酉 增廣試士策	(附)丁酉 增廣試士策	科擧論二
	北學辨	北學辨 *(謾筆)* *(詩學論)*	北學辨 *(謾筆)* *(詩學論)*	官論祿制	官論祿制
	官論祿制	官論祿制	官論祿制	財賦論	財賦論
	財賦論	財賦論	財賦論	通江南浙 江商舶議	通江南浙 江商舶議
	通江南浙 江商舶議	通江南浙 江商舶議	通江南浙 江商舶議	葬論	葬論
	兵論	兵論	兵論	兵論	兵論
	葬論	葬論	葬論	尊周論	尊周論
	尊周論	尊周論	尊周論	北學辨	北學辨
	北學議序 *(朴趾源)*	(附)丙午所懷			
	謾筆				
	詩學論				
	李廓羅德憲傳				
	日供				

16) 모든 것이 가람본과 동일한데, 외편의 목록제만 '북학의외편목록(北學議外編目錄)'이라 추가되어 있다. 따라서 동일본으로 볼 수 있다.

〈표 8〉 수원화성박물관본과 삼한본의 내편(內編) 목록 및 수록 항목 비교

구분	수원화성박물관본		**삼한본**	
	수록내용	목록	수록내용	목록
서문	서명응 〈북학의서〉		박지원 〈북학의서〉	
	박제가 〈서〉		×	
목록제	北學議目錄		北學議目錄	
권수제	北學議內編		×	
저자표기	朴齊家次修學		×	
내편	車	車	車	車
	船	船	船	船
	城	城	城	城
	甓	甓	甓	甓
	瓦	瓦	瓦	瓦
	甃	甃	甃	甃
	簟	簟	簟	簟
	宮室	宮室	宮室	宮室
	牕戶	牕戶	牕戶	牕戶
	階砌	階砌	階砌	階砌
	道路	道路	道路	道路
	橋梁	橋梁	橋梁	橋梁
	畜牧	畜牧	畜牧	畜牧
	牛	牛	牛	牛
	馬	馬	馬	馬
	驢	驢	驢	驢
	鞍	鞍	鞍	鞍
	槽	槽	槽	槽
	市井	市井	市井	市井
	商賈	商賈	商賈	商賈
	銀	銀	銀	銀
	錢	錢	錢	錢
	鐵	鐵	鐵	鐵
	材木	材木	材木	材木
	女服	女服	女服	女服
	場戲	場戲	場戲	場戲
	漢語	漢語	漢語	漢語
	譯	譯	譯	譯
	藥	藥	藥	藥
	醬	醬	醬	醬
	印	印	印	印
	氈	氈	氈	氈

	塘報	塘報	塘報	塘報
	紙	弓	紙	弓 矢
	弓	尺	弓	尺
	銃矢	紙	*銃矢*	紙
	尺	**筆**	尺	筆 墨
	文房之具		*文房之具*	
	古董書畵	古董書畵	古董書畵	古董書畵
		樂		樂
		韻		韻書
	杵(내용 무)	杵		染
		染燈		燈

〈표 9〉 수원화성박물관본과 삼한본의 외편(外編) 목록 및 수록 항목 비교

구분	수원화성박물관본		**삼한본**	
	수록내용	목록	수록내용	목록
목록제	北學議外編目錄		×	
권수제	×		×	
저자표기	×		×	
외편	田	田	田	田
	糞	糞	糞	糞
	桑菓	桑菓	-	-
	農蠶總論 (*擲梼*之制)	農蠶總論 (梼擲之制)	農蠶總論 (*擲梼*之制)	農蠶總論 (*擲梼*之制)
	(附)李喜經 農器圖序	(附)李喜經 農器圖序	財賦	財賦論
		搜粟都尉論	兵	兵
		立劈司車院議	北學辨	北學辨
	龍尾車說 (綸菴 李喜經)	(附)李喜經 龍尾車說	通江南浙 江商舶議	通江南浙 江商舶議
		同律度量衡論	尊周論	尊周論
		(附)李德懋禮記 臆律度量衡條	科擧	科擧
	科擧論	科擧論		
	科擧論二	(附)丁酉 增廣試士策		
	(附)丁酉 增廣試士策	科擧論二		

	北學辨	官論		
	官論祿制	祿制		
		黨論		
	財賦論	財賦論		
	通江南浙 江商舶議	通江南浙 江商舶議		
	兵論	葬論		
	葬論	兵論		
		名論		
		俠論		
		儉論		
	尊周論	尊周論	尊周論	
	北學議序(朴趾源)	-		
	謾筆	-		
	詩學論(1781)	-		
	李廓羅德憲傳			
	日供	-		
		北學辨		
		中國制政		
		東方禮俗		
		日本論		
		行人襍議		
		滄川議		
		山城論		
		(附)上李副使書		
		(附)送元玄川序		
		(附)李廓羅德憲傳		
		選士入太學議		
		族薦議		

〈표 10〉 삼한본과 수원화성박물관본 수정 및 증보 비교

항목	삼한본	수원화성박물관본	비고
박지원 서문	**鶴長烏黑**	鶴長烏黑 → 鶴脛烏羽	
	蚡田	蚡田 → 鷦枝	
〈車〉	–	**又嘗見因風掛帆而去者想與船同功**	내용추가
	余於琉璃廠西南數與*綵石*同車而國子監雍和宮太液池*文山廟輒與人同載*	余於琉璃廠西南數與**槐官**同車而國子監雍和宮太液池文山廟**法藏寺**墻**等使臣出遊處輒與使臣同車而載焉**	내용수정
	今人之謂車無利也*有以夫*	今人之謂車無利也**亦宜**	문구수정
	–	沈書狀曰鄙見政如此	내용추가
	柳琴曰 湛軒曰 亦足以優償	彈素曰 洪湛軒大容曰 亦足以優償之矣	문구수정
	車性不畏登而畏陷今闤闠	車性不畏*百里之*登 而畏*咫尺之*陷今闤闠	刀割 수정
	守令	**一切**守令	문구추가
	車中犖确	**或云**車中犖确	문구추가
	今書狀*自*所乘*坐*車用太平車之輪	今書狀所乘車用太平車之輪	문구수정
〈船〉	使臣及與余	使臣及與余**與槐官登焉**	문구누락
〈城〉	又況實瓦以土 動而數墮	又況實瓦以土**善**動而數墮	문구누락
	李朱民曰	李熹英曰	문구수정
〈劈〉	–	水庫之物---(이하 7면)	내용추가
〈瓦〉	或自---(이하 3행 공백) 뒷면에 문장 이어짐	或自-다음 면으로 이어짐	문장배치 수정
〈宮室〉	一塊厚積	一塊**如倒種禾然**厚積	籤紙 문구 추가
	如薙馬鬣而視其根也	如薙馬鬣而視其*端*也	글자수정
	屋梁則	**我國之屋如梳頭而刷髮夫一莖之艸立則其朽如磨墨臥則其朽如隔紙此中國我國盖屋之分也.** 屋梁則	籤紙 문구 추가
	此中之人焉則方是之時	此中之人焉則**萬事荒陋遞相傳染** 方是之時	籤紙 문구 추가
〈道路〉	知其美觀而反怠焉則亦已矣	**不知移其法於他處則十年之內樹已成矣**	문구수정
	九月柳惠風自瀋陽來兩旁立拒馬木皆黃色	九月柳惠風自瀋陽來*言中路築* *以黃土高一尺*兩旁立拒馬木皆黃色	문구삭제
〈畜牧〉	亦多正穀或云中國之馬食	亦多正穀**以古人凶年馬不食粟之文觀之平年食粟可知也**或云中國之馬食	籤紙 문구 추가
〈馬〉	利深溺則無病. 周禮---(이하 생략) 月令---(이하 생략)	利深溺則無病 **鄭鍔曰---(이하 7행 추가)** 周禮---(이하 생략) 月令---(이하 생략)	문구 추가 하면서 한 면 전체 신규 필사

〈驢〉	復來井上,	復來井上. **站驢十里貰十文錢---(이하 3행 생략)---抵死不去.**	문구 추가 하면서 한 면 전체 신규 필사
〈鞍〉	–	宋史兵志云---(이하 3행)	문구 추가 하면서 신규 필사
〈市井〉	通與不通之故也. *上使*曰	通與不通之故也. **蔡判書**曰	문구수정
〈商賈〉	其風流名節自在也. 我國之俗尙	其風流名節自在也. **故儒生直入書肆宰相或親往隆福寺買古董余遇嵩貴於隆福寺人皆笑之殊不然此非淸俗自明宋已然**我國之俗尙	籤紙와 挾書로 문구 추가
〈女服〉	世界常苦缺陷	**非受封不敢戴--(이하 4행)--周尺二三寸.** 世界常苦缺陷	籤紙 문구 추가
	–	**李仲存有所著髦結議頗可采**	문구추가
〈氈〉	至令*夫婦不相得*	至令**陰陽不和**	문구수정
	–	**此段極似世說 弦公評**	書眉에 籤紙 추가
〈弓〉	–	**又有虛中之的離重而重設之若儀器之窺筒欲矢之直而疾也.**	籤紙 문구 추가
〈田〉	失田三分之一矣. 又種法	失田三分之一矣. **單耜人所耕者半於牛田也牛也人也器也尺寸相應.** 又種法	籤紙 문구 추가
〈桑 菓〉	–	**전체 추가**	문구 추가 하면서 전체 신규 필사
〈農蠶總論〉	今卒然敎其民以*高宮室飾玩好燔燒琉璃粹瓦繅造奇錦異器*云爾	今卒然敎其民以**栽花木畜禽獸音樂玩好之物陳列古器作爲奇技淫巧**云爾	문구수정
	亦旱水地. 有蠶箔	亦旱水地. **有瓠種焉蒔不勞踵矣---(중략)--所以均種也.** 有蠶箔	籤紙 문구 추가
〈通江南浙江商舶議〉	–	**齊家自識**	문구 삭제
〈科擧〉	〈科擧〉 **以功令之皮毛--(중략)--幾稀矣.**	**〈科擧論二〉** –	삭제

▮ 참고문헌

1. 원문자료

『孟子』, 「滕文公上」.
朴齊家, 『貞蕤閣集』, 「貞蕤閣三集」.
正祖, 『弘齋全書』 卷29.
『承政院日記』, 국사편찬위원회 웹.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 웹.
고려대 해외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korea.ac.kr)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서울대학교(http://e-kyujanggak.snu.ac.kr)
왕실도서관 디지털 아카이브, 한국학중앙연구원(http://yoksa.aks.ac.kr)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http://db.itkc.or.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koreanhistory.or.kr)

2. 단행본

國史編纂委員會 編, 『貞蕤集-附錄北學議』(韓國史料叢刊書 第12), 1961.
김영진, 「조선후기 실학파의 총서 편찬과 그 의미」, 『한국 한문학 연구의 새지평』, 소명출판, 2005.
안대회, 『완역 정본 북학의』, 돌베개, 2013.
通文館, 『88五輪記念古筆寫本展示目錄』, 通文館, 1988.
한국일보사 백상기념관, 『百想追念稀貴本展』, 한국일보사, 1989.

【Abstract】

A Study on the Originality of *Bukageui* (北學議) in Suwon Hwaseong Museum

Park, Chul Sang*

Pak Je-ga(1750-1805)'s *Bukageui* (北學議, The discourse of learning the Qing Dynasty)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writings of the 19th century. Recently, a book known as the original version of the *Bukageui* was released. Accordingly, the need to examine whether the『Bukhakui』is the original was raised. To this end, this paper first looked at the compilation process of『Bukhakui』and various copies.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Bukageui*, published in the *Sanhan chongseo* (三韓叢書) compiled by Park Ji-won(1737-1805), conveys the early appearance of *Bukageui*. It was also confirmed that Park Ji-won's 〈a preface to the Bukageui〉, which was published in the collection of the Suwon Hwaseong Museum, was his own handwriting. I also looked at several copies of『Bukageui』, which are derived from the original *Bukageui*, which is housed in the Suwon Hwaseong Museum. Through this, I confirmed that *Bukageui,* owned by the Suwon Hwaseong Museum, was the original handwritten by Park Je-ga.

Keywords: Park Je-ga (朴齊家), Park Ji-won (朴趾源),
Bukageui (北學議, The discourse of learning the Qing Dynasty),
Samhan chongseo (三韓叢書), A book dedicated to the king (進上本),
A Study on the Academics and Culture of the Qing Dynasty (北學).

접수일: 2023.03.31. ‖ 심사일: 2023.04.17. ‖ 게재확정일: 2023.05.23.

* Director, Research Inst. on ancient book, document and culture of Korea.